

第 1 話

日 쓰니와 美 발콴의 紛爭

— 時局을 勘案, 和解로 매듭 —

쓰니의 前身인 東洋通信工業은 永井이란 사람이 發明한 交流마이크스磁氣錄音方의 테이프레코더에 대한 日本 特許136997號를 取得하는 한편 美國에서도 특허를 얻었다.

쓰니는 특허를 취득한 다음 이 특허에 의한 테이프레코더를 生産하여 日本內에 販賣하고 있었다. 이때 在日美國貿易商인 발콴이 일본안에서의 테이프레코더市販率이 上昇하게 됨을 보고 同種의 美製테이프레코더를 일본에 輸入하여 百貨店에서 自動車部屬品 또는 駐日外人用品으로 팔기 시작했다. 이때가 美軍駐屯下인 1952~1953年이다.

이것을 確認한 쓰니는 特許의 屬地性和 特許 및 關稅率法에 特許品의 수입을 禁止하고 있음을 利用, 일본에의 수입은 違法이라는 理由를 내세워 輸入禁止假處分請求를 東京地法에 提起了다.

結果는 쓰니의 勝訴였다. 損害賠償請求訴訟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꽤나 빠진만큼 발콴貿易도 代理店을 통하여 여러種類의 無効訴를 제기하였으며, 時局을 勘案한 쓰니는 발콴과 마침내 和解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오늘의 그들과 隔世之感이 있는 姿勢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말하듯이 特許紛爭解決의 最上의 길은 和解밖에 없다는 結論이 實感난다.

第 2 話

TEFLON과 DAIFLON商標

— 時情을 把握한 大金의 商才 —

테프론(TEFLON)은 美듀퐁의 商標中の 하나이며 主로 耐熱, 耐藥品性을 利用하여 腐蝕性藥品用 또는 高低溫用파이프, 개스케트, 패킹등에 쓰여지고 있다. 또한 電氣의 性質을 利用하여 제트機, 一般航空機, 發電所등 보일러와 같은 高溫部 및 電氣絶緣材料, 無線機器, 레이더部品 등에 非粘着性을 이용한 플루라이켄등

의 코팅, 低摩擦係數를 이용한 無結油受軸, 피스汀링, 베어링 등에 使用되기도 한다. 또 벨브, 다이아퍼럴, 輕送덱트, 슈트, 攪拌棒, 攪拌翼, 메카니칼실 등에도 効果가 있다.

한편 日本의 大金工業會社는 다이푸론(DAIFLON)을 聯合商標로서 商標登錄을 하고 있으나 다이프론도 테프론의 同類라고 할만한 化合物인 三東化에틸렌樹脂는 테프론보다도 加工性이 良好하다는 理由로 파마넨트·레스 또는 洗劑에까지 利用되고 있다.

大金工業은 2次大戰前에 듀퐁과 提携하여 푸레온을 製造하였다. 들리는바 同社는 戰後 재빨리 戰時中の 技術料에 該當하는 金額을 듀퐁에 支拂하였다.

듀퐁에 테페론은 그 상포가 強力하여 市場把握力과 開發力도 강하므로 테프론도 이미 普通名詞化하게 되어 이 點을 大金工業이 採用한 것이며 戰中 技術料支拂도 先手를 친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듀퐁은 新技術開發과 採用에 어느 企業보다 積極的인은 國際的으로 公認되어 있다. 테프론의 개발도 그 結果의 所産이다.

테프론의 發明者는 듀퐁研究所(월민턴)所在의 로이·부런케트와 그 助手들이다. 로이와 그 조수는 四弗化에틸렌을 利用하여 새로운 冷凍劑를 製造하는 研究를 하고 있었다. 조수는 四弗化에틸렌을 封入하여 만든 드라이冷菜의 圓筒에 붙여진 파이프를 實驗裝置에 連結한 다음 四弗化에틸렌개스를 장치에 보내려고 벨브를 열었다. 그랬더니 개스가 없어졌음을 發見하였고 이어 원통의 무게를 計量한바 원통에 넣은 개스重量만큼 원통의 무게가 늘었음이 確認되었다.

이상하게 여긴 로이는 원통의 뚜껑을 열어본바 개스는 없으나 그 속에서 白粉이 나옴을 보았다. 바로 이 白粉에 의심을 갖고 分析室에 보내어 분석한바 反應性이 強烈한 弗素가 炭素와 結合하여 安定된 新物質이 되었음을 알고 數名의 化學者가 3年제인 1941년에 부런케트의 원통에 成形된 그것과 같은 물질을 만드는데 成功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갖고 小規模의 파일롯工場을 만들어 새 물질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바로 테프론이다.

그리하여 이 테프론은 2차대전중의 原子爆彈製造工程에 필요한 材料가 되었다. 테프론의 基本特許存續期間은 이미 終了되었음은 말할나위 없으나, 商標名과 노우하우는 아직도 여러나라에서 人氣가 있다.